

얀바루의 역사 및 문화

얀바루에는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 세기까지 얀바루는 오키나와 3 개의 왕국 중 하나인 호쿠잔 왕국의 일부였습니다. 호쿠잔 왕국은 1416 년에 남쪽의 주잔 왕국 군대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주잔 왕국은 3 개의 왕국을 통합하여 류큐 왕국을 세웠고 1429 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류큐 왕국은 1879 년 일본 메이지 정부에 의해 해체되어 오키나와현이 되었습니다.

자연환경과 연계된 사람들

얀바루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산림에서 얻었습니다. 류큐 왕국 시대부터 전통배인 얀바루선을 사용하여 다양한 필수품과 교환하여 솿, 장작, 대나무, 목재를 오키나와의 다른 지역에 운송했습니다. 이 목재는 성에서 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전통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어져서 오키나와를 복구하기 위해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얀바루의 숲에는 솿을 굽는 가마와 쪽을 발효시키는 항아리 등, 이 산업 초기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류큐의 신앙 세계

류큐의 전통적인 신앙은 바다와 산이 일체라고 봅니다. 류큐 왕국의 정부 시스템 하에서 ‘노로’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각 마을에 무녀로 헌신했습니다. 노로는 신과 교신하거나 사람들이 자연이 주는 은혜에 감사하고 악령을 쫓아내며, 신들에게 풍요와 풍어를 기원하는 전통 축제인 마쓰리를 주관했습니다.

얀바루의 지역 사회

현재 얀바루에는 10,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3 개의 마을에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얀바루 지역 사회의 배치와 환경은 천연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전통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류큐의 관습을 보여줍니다. 마을은 원래 강 주변에 형성되어 농업 및 솿 제조 등의 활동을 위한 장소가 지정되었고, 연안의 산호초에서 어패류와 해초를 얻었습니다.